

특별기고

금남로에서 광주정신을 생각하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수년 만에 5·18 전야제에 참여할 행운을 가졌다. 학생시절에 참여한 금남로의 전야제나 교수시절의 그것과 사뭇 다른 느낌을 가졌다. 광주·충청·세종시 교육감과 함께 전야제 내내 나는 금남로의 열기에 취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성원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말해주었다. 광주에 대한 글을 쓸 때 ‘나는 광주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광주에서 성원과 정기를 뽐낼 받아가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

전야제에서 광주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포용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노란색 천으로 세월

호를 인양하여 행사장 연단에 우뚝 매달아 세우는 것으로 전야제를 끝낼 때, 나는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함께 연단에서 ‘광주출정기’를 부르고 있었다.

광주와 세월호 유가족의 포용

금남로의 전야제 내내 나는, ‘광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하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 보면, 80년대에 광주는 한국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거대한 동력이었다. 아니 한국민주주의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 그 회복의 내용 그 자체가 광주의 진상규명이었고 광주를 ‘폭도의 도시’에서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마침내 광주에 힘입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회복된 이후에는, 광주는 또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다.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그 후퇴를 막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공안정국으로, 때로는 탄핵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뒤뚱거리 할 때, 광주는 변함없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초로 존재했다.

그런데, 이처럼 ‘회복’된 한국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마지막 보초가 된 광주

는 또한 한국민주주의의 ‘전진’을 추동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데 또 다른 광주의 의미가 있다. 나에게 있어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말해지는 광주는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기득권적 질서에 대한 좌절과 그 좌절 속에서 꿈틀대는 대안적 희망’을 의미한다. 그 비인간적인 기득권 질서는 80년대에는 전두환 독재정권 이었고, 지금은 강정으로, 쌍용으로, 용산으로, 비정규직의 아픔으로, 지역의 기득권정치로, 또한 세월호로 상징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광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광주의 좌절과 대안적 희망이 다른 지역, 다양한 계층, 다양한 소수자들, 비루한 일상을 사는 수많은 작은 시민들의 절망과 대안적 희망과 만날 때, 바로 그때 광주는 한국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거대한 동력으로 비상했다. ‘광주 5·18의 전국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도 이 만남이 현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가 광주 이외의 무수한 좌절들과 희망들의 표상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광주가 호호들의 이해에 사로잡힌 많은 지자체들을 부끄럽게 할 때, 광주가 기득권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의 대안적 정치의 산실이 될 때, 오로지 사익 일변도의 경제를 넘어 공유의 가치가 살아있는 공동체적 지역경제의 실험들이 진행될 때, 또한 광주가 광주 이외의 무수한 아픔을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파스한 친구로 느껴질 때, 광주는 다양한 주체들의 절망들과 희망들이 투사되는 기표(旗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정신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나는 금남로의 바닥에 앉아, 다시금 광주가 한국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능케 하는 동력으로 비상하기를 소망했다. 우리 모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비인간적인 기성의 질서와 힘에 대해서 좌절을 느낀다. 그런데 그 좌절 속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내재해 있다. 광주는 바로 좌절 속에서 대안적 희망을 현실화해온 거대한 운동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광주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의 포용은 이 시대 광주와 비(非)광주가 새로운 희망으로 만나는 것을 상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다산포럼

전통시대의 임신과 출산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창세기 3장 16절)

구약성경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고통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 먹은 하와에게 하느님이 내린 벌이다. 성경의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들은 1840년대 후반에 등장한 클로로포름 마취제로 무통 분만을 시술하는 데 대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무통 분만은 여성들에게 산고(産苦)를 부과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무통 분만이 처음 시행되었고 반대운동도 가장 극렬했던 영국에서는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마취하에 레오폴드 왕자를 분만하면서 저항의 기세가 꺾였다.

개인차가 있지만, 여성들은 임신 기간과 출산 시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은 성경의 표현 이상으로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한다.

근대 이전에는, 요즈음과 달리 가임기 여성의 사망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 사망률보다 높았다.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수유 때문에 생기기거나 악화되는 질병과 사고, 체력 약화 등 의학이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의 관련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남아 있는 스웨덴의 경우, 1700년대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000명 가량이었다. 임신과 출산 때문에 사망할 확률(위험도)이 약 1%였다는 뜻이다. 만약 10번을 출산한다면, 죽을 확률이 10% 나 된다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11.5명이다. 모성사망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별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는 임신과 출산이 가임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었다. 그런데도 왜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임신과 출산을 감행했을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어렸을 때 이 시조 구절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주세붕(1495~1554)은 이 시조에

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신 은혜’도 언급하지만, 핵심은 아버지가 자식(아들)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점이다. 여성은 남편에게서 받은 생명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몸 안에서 길러야 하고, 자식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양육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생명을 길러서 ‘아들’을 탄생시키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

여성은, 남성에서 남성으로 이어지는 혈통과 가계 유지를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에 따라 의사들도 자식을 잘 낳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모태 내의 여아를 남아로 바꾸는 방법도 연구했다.

허준(1539~1615)이 편찬한 ‘동의보감’(1613년 간행)에는 다음과 같이 ‘전녀 위남법’이 기술되어 있다.

“임신 3개월이 된 것을 시태(始胎)라고 한다. 이때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약을 먹고 구별법을 쓰면 남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세의득효방’.” “닭이 알을 잘 낳 때를 기다렸다가 도끼를 닭둥우리 밑에 떨어뜨리면 그 둥우리의 병아리가 모두 수컷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입문’.”

“석용황(石雄黃) 1냥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임신부의 왼쪽 허리에 두르고 있게 한다. 활활 한 개를 비단 주머니에 넣어

임신부의 왼쪽에 차고 있게 한다. 어떤 책에는 활활을 석 달 동안 허리에 두르고 있다가 풀어 버린다고 하였다. 임신부가 원추리꽃을 차고 있게 한다. 수탉의 긴 꼬리털 3개를 임신부의 자리에 놓고 알려 주지 않는다. ‘부인대전양방’.”

‘동의보감’의 내용 대부분이 그렇듯이, ‘전녀위남법’도 허준이 창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부인대전양방’ 등 중국의 의학 명저에 나온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전녀위남법은 1608년 허준이 선조의 명령에 따라 연문(韓文)으로 펴낸 ‘언해태산집요’에도 나와 있다. 이전에도 이런 방법들이 소개되었지만, 허준의 책들이 나오면서 더욱 널리 알려졌다.

1917년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펴낸 ‘조선위생풍습록’에는 ‘도끼 방법’과 ‘수탉 꼬리털 방법’이 채록되어 있다. 그리고 유안진의 ‘한국의 전통의학 방식’(1994년)에 의하면, 50세 이상 된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부인들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전녀위남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방술(方術)을 썼다고 하며, 머느리에게 그런 방법을 사용토록 한 경우는 90%가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도 당연히 전녀위남법이 광범위하게 쓰였을 것이다. 그만큼 아들 낳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기대

기 고



안용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하는 일 가운데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조닝(Zoning)’이다. 도시를 여러 개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이라 불리는 존으로 구분한 뒤 각 존마다 허용되는 토지용도와 밀도를 정해주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쳐 다수 시민의 건강과 안녕, 복지를 침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화됐고, 1990년대 지방자치의 시작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권한도 지방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참여의 폭을 다양화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 시민단체 협의회, 환경단체 등의 위원을 확보했고, 전문여성 인력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성의 참여를 일부 확대했다. 공공의 배려와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돌보고 지켜내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이 강하면 반대로 주민 발원이나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는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주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인다면 기술적인 전문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 일부는 도시계획의 본연은 ‘공익 지킴이’라 한다. 필자도 이런 도시계획의 성격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시의 도시정책, 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의 당위성을 검증하는 최종의 사절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전문성과 유연

성을 통한 공익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기대된다. 더불어, 행정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회 심의시 시민의견을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이 그것이다. 향후에도 위원회 구성시 시민의 참여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 위원회 방청, 의사록 열람 등 정보공개의 확대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책임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력(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충원과 함께 도시계획 관련 프로그램 개발·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속성 확보도 요구된다.

과거 개발을 위한 행정관청 주도형의 ‘나를 따르라’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도시계획·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개발 이익보다는 수십 년 후 우리 후손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아름다운 광주를 그려본다.

社說

6년째 5·18 ‘반쪽 기념식’이 국민통합인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돌로 갈라 놓았다. 5·18 유족들과 관련 단체가 18일 오전 10시 국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의 35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대신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더욱이 이번 기념식은 대통령이 불참한데다 국무총리마저 공석이어서 1997년 5·18 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최경환 총리대행이 기념사를 낭독했다. 또 기념식장은 5·18 유족과 회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이들의 반자리를 광주지역 중·고교생과 보훈처 직원들이 동원돼 자리를 메우는 촌극도 벌어졌다.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져야 할 5·18 기념식이 초라한 행사로 전락한 것이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해 다소나마 위안을 주기도

했다.

앞서 17일 저녁 5·18 전야제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물 세례와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떠야 했다. 정부 여당의 그것만 자제와 야당의 무능으로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달은데 대한 시민들의 항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포용해 죽음과 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운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함에도 여야 대표에게 불상사를 안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물론 일부 시민의 과격, 배타적 소행으로 남길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자칫 5·18이 광주만의 전유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 여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놔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반쪽 기념식’으로 치를 것인가. 시민들도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스스로 고립시키는 우(愚)만 범할 뿐이다.

아직도 여전한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

많은 시민들이 최근 개관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을 찾고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자리잡은 기록관에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활동이 담긴 사진, 재판기록, 희생자 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기록관에 처음 들어서면 5·18 당시 부녀자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아주 큼직한 양은 함지박을 만날 수 있다. 트럭 바퀴 자국이 선명한 태극기와 당시 희생자가 있었던 옷가지와 신발, 현장 기자의 취재수첩, 시민들의 일기 등도 전시돼 당시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기록관은 많은 사람들이 5월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과 대동정신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5·18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아직도 5·18을 폭력사태와 폭동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하다.

5·18 기념재단이 최근 5·18 35주년 추화운동기록관을 찾고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 건물에 자리잡은 기록관에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활동이 담긴 사진, 재판기록, 희생자 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

기록관에 처음 들어서면 5·18 당시 부녀자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아주 큼직한 양은 함지박을 만날 수 있다. 트럭 바퀴 자국이 선명한 태극기와 당시 희생자가 있었던 옷가지와 신발, 현장 기자의 취재수첩, 시민들의 일기 등도 전시돼 당시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기록관은 많은 사람들이 5월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과 대동정신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5·18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리면 아직도 5·18을 폭력사태와 폭동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여전하다.

無等鼓

“도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그래서 난 교정소에도 못 가고 별벌 뿔었다. 젊은 언니 오빠들을 잡아서 때린다는 말을 듣고 공수부대 아저씨들이 잔인한 것 같았다...”(광주 동산초등학교 6년 김현경 양 일기장 중)

“천주님!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토록 많은 광주 시민이 희생되어야 할까요? 저에게 하라만 해주신다면 인간괴수...”(주이택 당시 윤공회 대구교 비서 일기장 중)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다가 6월 1일에는 4페이지짜리 신문을 만들게 된다.

1면에 무등산 사진과 김준태 시인의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실고, 3면에는 ‘민주시민의 금지 안은 침묵의 광주 분수대’라는 제목을 붙인 도청 앞 분수대 사진과 함께 ‘광주는 영원하다...’는 타이틀을 붙여 우회적으로나마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려 했다.

5·18 기록관

유리장 안에 전시된 일기장은 꼬박 35년의 세월이 흐르며 누렇게 변했지만 1980년 5월 당시의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아스팔트 위에 어지럽게 널려진 신발과 선혈 자국, 흩어진 탄피로 집단체포 현장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1층 1전시실 입구는 영상속 탱크 캐터필러(무한계도) 소용과 어우러져 긴장감을 더한다. 특히 기자 입장에서 당시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옛 전남매일신문(현 광주일보) 6월 2일자 신문이 눈길을 끌었다. 신문 발행을 못 하고 불신받던 엄청난 상황에서도 현장을 보고 기록해야 하는 기자의 소명 의식과 전남북 계엄본소의 검열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자

하지만 계엄당국의 검열에서 사는 곳곳이 삭제돼 110행 가운데 35행만 살아남았다.

‘누물과 피로 범벅됐던...’으로 단 기사 소재제목도 ‘범벅’ 대신 ‘얼룩’으로 바뀌도록 검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관련 각종 기록물을 보관·전시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금남로 3가 옛 가톨릭센터에 최근 개관했다. 전시실을 차례로 거치는 동안 35년간의 ‘광주 오월’을 압축한 시간 속으로 빨려드는 듯한 기분이 든다. ‘오월의 기록’을 통해 5·18의 역사적 위상과 광주정신이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개발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